

제6차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20. 7. 16. (목) 15:00 ~ 18:00
장 소	현대해상빌딩 8층, 회의실
참 석 자	위원장 등 9명 (재적인원 11명 중 9명 참석)
주요내용	○ 제4차 회의록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 ○ 시나리오워크숍 논의 및 진행 방향 ○ 차기 회의 일정
회의결과	○ 시나리오워크숍 논의 및 진행 방향 설정 1) 시나리오워크숍 참여자에게 정보 및 자료 제공 ▸ 법·제도, 예상되는 효과와 우려, 자광(안)과 기타 제안 2) 옛 대한방직 부지의 바람직한 미래상 논의 3) 토지이용 구상(안) 도출(시나리오 작성) 4)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 합리성, 타당성 제시 ※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타당성과 합리성 논의(제약·검토사항) ○ 차기 회의 일정 - 2020. 7. 27.(월) 09:30 ~

제6차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회의록

#. 개 회

발 언 자	발언 내용
간사	- 안녕하십니까?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감사입니다. 금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공론화위원회 총 재적인원은 총 11명으로서, 현재 9명 참석하시어,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진행상황 보고입니다. - 현재 시청 홈페이지 시민공론화 관련 게시판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하시어, 추가 수정·반영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공론화 용역은 현재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중이며, 금주 중으로 공고 예정입니다. - 금일 회의는 제4차 회의록 세부내용에 대한 확정, 시나리오워크숍 의제와 참여자 구성 관련 그룹별 위원수 및 위원 선정방법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발 언 자	발언 내용
위원장	- 제6차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략 일정을 보면, 시나리오워크숍 참여자 구성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정해지면서 8월초에 공론화 용역 수행기관이 선정되고, 참여자 구성 및 의제에 대해서 같이 결정되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최종 결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들이 있고 업체가 들어와서 착수보고까지 하면 바로 업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8월 둘째 주까지는 내부적으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오늘은 결정하기보다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정리하고 추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지난번에 논의했던 참여자 구성 관련해서는 의제와 함께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전준비위원회에서부터 얘기되었던 ‘시민공론화위원회 의제 방향’ 자료를 가지고 시작해보겠습니다. - 먼저, 제일 첫 번째 용도 가능 여부 및 타용도 변경 가능성을 의제로 삼느냐인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 저번에 제가 논의할 내용 중에 시나리오워크숍에서 단일 시나리오를 만들 것인가 복수의 시나리오를 만들 것인가도 중요한 이슈라고 했는데 그게 저희가 의제를 범위를 정하고 구조화하는데 필요한 정보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고민해도 되나요?
○○○ 위원	- 그건 나중에 문제일 거 같습니다. 왜냐면 선택지가 여러가지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용도변경을 한다. 또는 안 한다. 했을 때는 A, B, C, D로 한다. 또 A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일안으로 노력은 하지만 실제 단일안이 될지 복수 안이 될지는 워크숍에 참여한 분들이 각자 내놓는 안이 어디까지 합의해내고 어디까지 합의되지 않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을 결정할 이유까지는 없을 거 같습니다.
○○○ 위원	-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제 앞에 나와 있길래 혹시 그걸 어느 정도는 단일 시나리오에 대한 가능한 대안을 고민하고 들어가는 건지 여쭙봤습니다.
○○○ 위원	- 단일안 자체는 어렵지 않을까요?
위원장	- 저도 단일안으로 모아지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3개정도 안이 나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 너무 복수안이 나와버리면 나중에 공론조사할 때 시민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워져가지고 너무 많이 나오면 좋지 않다고 봐요
○○○ 위원	- 최대 4개정도로 나오면 좋겠어요
○○○ 위원	-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용도변경과 관련된 저는 제일 중요한게 이렇게 봅니다. - 정보제공을 해줘야 될 것 중의 하나가 어쨌든 전주시는 2035년까지 용도변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주시의 공식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고요. - 그래서 만약에 변경을 한다면 그 변경에 대한 당위성, 타당성은 분명히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 그러면 예를 들면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타용도 변경 가능성은 의제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하고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 위원님?
○○○ 위원	- 다 논의를 시켜봐야 될 사항인데, 가능여부 이거는 그분들한테 결정할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해줘야되는 상황인거잖아요?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인데, - 저는 기본 전제를 어떻게 해야될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하는데, 저기가 사유지이고, 이전에 어떤 계획이 나와있고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촉발됐지만 일단은 그걸 빼고 만약에 시민들이나 시나리오워크숍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주 전체의 발전이나 이런 것을 고민했을 때 이 부지 자체가 어떤 방향이 됐으면 좋겠느냐 - 지난 번에 제로베이스부터 시작하자고 하셨듯이 이 부지의 바람직한 방향 자체부터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예를 들면 옛 대한방직 부지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며 그것에 대한 합리적 방안은 무엇이나 이런 논의가 될 거 같은데요
○○○ 위원	-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 저는 지금 현재 주어진 제약 조건들은 일단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아니고 나중에 시민들의 몇가지 안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협상을 하고 해야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시민들이 진짜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이 부지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데에 논의를 끌어 내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 위원	- 대개 제가 몇 개 시나리오워크숍을 보니까 처음에 금방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이슈에 목표하고 비전 이런 걸 먼저 공유를 하는게 첫 번째더라고요. -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바람직한 전주의 발전의 미래상 이런 이야기가 되다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들은 개발을 많이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거 거든요
위원장	- 그러면 첫 번째로 옛 대한방직 부지의 바람직한 미래상(개발방향) 이런 걸 먼저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거죠?
○○○ 위원	- 개발방향이라기 보다는 토지이용 구상이 좋을 거 같습니다.
○○○ 위원	- 저런 의제의 용어가 상당히 중요한게 워크숍에 참여한 분들이 용어 자체가 우리의 무언가를 암시한다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	- 네 그러면 옛 대한방직 부지의 바람직한 미래상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 그런데 ○○○ 위원님 이걸 얘기하기 전에 예를 들면 제로베이스에서 던져주기만 하는지 아니면 제로베이스에서 던쳐주고 현재상황이 이렇다라고 알려주었을 때 생각하는 미래상이 바뀌는지 이렇게 물어보는게 좋은 겁니까?
○○○ 위원	- 그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아까 참여자 구성이나 의제, 운영이 연동된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아놓고 바로 논의해 보십쇼 이럴 순 없을 거고, 공론화와 관련된 논의도 하지만 그 주제와 여러분들이 여기 왜 이렇게 모였는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 위원	- 아니면 이 자료들을 미리 배포해 주고 공부를 해오라고 해야되지 않을까요?
○○○ 위원	- 네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 자료집을 만들어서 자료집에 어떤 내용을 어디까지 실어가지고, 주고, 학습해오고, 또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나와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논의를 하되 우리가 출발은 이러 했지만 어쨌든 제로베이스라는데 이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어떨까 싶긴 한데요.
위원장	-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를 제로베이스로 보느냐, 그러니까 전혀 상황 설명 없이 추상적으로 한번 미래상을 던지게 하느냐 - 아니면 처음부터 상황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미래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가느냐 하는지가 조금 헷갈리네요?
○○○ 위원	- 상황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분들도 100%는 아니지만은 이것저것 들어온 게 있고 읽어온게 있는데 모르는 척하고 하는건 말이 안되는 거 같아요.
○○○ 위원	- 제 생각은요. 일단 정보는 패키지로 만들어서 미리 배포를 하고, 모이면 이제까지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어느 시점에서 퍼실리테이터가 끊고 누군가가 나와서 자세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짜임새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설명도 해주고, 상황설명도 해주고 이런 게 - 그런데 너무 많은 정보를 알고 미래상을 이야기 하다보면 조금 자유로운 생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위원장	- 그러면 지금 ○○○ 위원님이나 ○○○ 위원님께서도 옛 대한방직 부지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물어볼 필요가 있다. 다만 그러기에 앞서서 현재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습득하게 한 후에 저걸 물어보는게 좋다는 의견이신 거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주시죠.
○○○ 위원	- 저는 상상이 조금 안가가지고요. 예를 들어 4개 그룹이든 5개 그룹이든 예를 들어서 정책결정자 그룹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백지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그게 가능하다고 했을 때 3~4개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각 팀별로 3~4개씩 나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지 정리가 잘 안되요. - 다르게 말씀드리면, 차라리 배경 설명과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주고 무작위로 예를 들면 메모지 같은 걸로 해서 지금 우리가 팀별로 하는 것을 처음부터 깨가지고 모집단 팀별로 하고, 처음에 자기가 원하는 시나리오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가지고 거기다 몰아넣고 나중에 다시 섞으면 몰라도 - 처음부터 팀별로 해를 때 거기에서 많은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어떻게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해가지고 그 속에서 1개 내지 2개로 압축하고 여기에 나오는 의제의 방향에 맞게 정리가 가능한가? - 그 다음에 2차 워크숍때 이걸 또 어떻게 섞든 정리를 하든 시나리오를 어떻게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건지 저는 정리가 잘되지 않아요.
○○○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의제와 참여자와 운영까지 연동되어 있다는게 지금 의제를 이야기 하면 운영을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

	잡아요
○○○ 위원	- 그러니까 상상이 안가니까 의제를 어떻게 내는게 실제 운영에 있어서 이게 돌아갈 것인지가 저는 연계가 안된다는 거죠.
○○○ 위원	- 그래서 오늘 의제도 논의만 하자고 한게 왜냐하면 다음에 또 운영을 어떻게 할거냐고 논의를 하면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기본안은 그룹별로 유사한 성격 혹은 유사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그룹별로 시나리오 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그걸 꺼내 전체안을 만들어보고, 안되면 이제 2~3안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가서 좀더 구체화 시켜보고 하는 이런 과정인데요 교과서는.
○○○ 위원	- 제가 이해하기로는 첫날에 전문가 그룹별로 4개 정도가 나뉘시면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만약 의제에서 너무 벗어난다면 벗어나지 않도록 잡아줄 필요가 있고요, - 그런 다음에 의제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 방향별로 여러 개의 그룹이 지어지면 거기에서 또 논의를 하다보면 이 시나리오가 조금 좁혀지는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요
○○○ 위원	- 그것도 한 방식일 뿐입니다. - 그러니까 방식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안, 기본안이 있지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서 의제 논의하고 다음에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또 다음에 논의를 해봐야 합니다. - 그래서 의제랑 참여자랑 운영방식이 어느 정도 논의가 깔려야 우리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제도 저번처럼 참여자를 놓고 논의한 것처럼 그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가 나와야 그 다음이 또 논의가 될 겁니다.
위원장	- 네 오늘은 자유롭게 의견교환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 그러니까 의제든, 진행방식이든 어떻든 간에 다 이야기를 터놓고 해보면 하다가 좁혀지는 부분에서 논의를 진행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 위원	- 이상적으로는 경계를 터 놓고 다 이야기하는 것이 좋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러다보면 그 이야기 하다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대한방직 부지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거든요. 그러면 이 제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많은 돈을 주고 용역을 통해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안이거든요. 이렇게 됐는데 여기 시나리오워크숍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그럼 이렇게 전주 도시기본계획 용역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과 다르게 안이 있을 수 있느냐, 또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주거 용도지역에서 가능한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 이렇게 나름대로 범위를 정해서 해야 안이 구체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것이지 터놓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공원부터 시작해서 한도 끝도 없어요. - 그래서 이것을 나름대로 정해진 틀을 정해줘야 논의가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위원	- 처음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이게 그래서 공론화가 밖에서 비판을 받는 이슈가 무엇이나면 사유지를 어떻게 공론화를 하느냐는 분들을 보면 밖에서 보는 시각은 일단 자광 사업을 승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 이야기 해야지 너무 복잡하고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 그런데 이것을 넓혀서 보면 공론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을 때는 정말 자유롭게 의견이 개진되어야 공론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라는 것과 부딪힌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 그러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있는데,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이냐면 충분히 기본전제를 주고. 그 안에 여러가지 방향에 대해 참여단이 선호 투표를 하면 그중에 반드시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차투표를 하는 거죠, 1순위, 2순위, 3순위 해가지고, 전제가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을 중심으로 한 선호도 투표를 했을 때 예를 들면 30명 중에 10명은 용도변경을 해주자, 20명은 해주지말자 그러면 다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복수질문을 해가지고 그게 그룹이 만들어 질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하면 의제를 의제대로 기본적인 정보와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다뤄야 될 것을 정해놓고 이렇게 각각의 용도변경과 비변경, 의결에 따라서 의제 범위 안으로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면 시나리오가 만들어 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 처음부터 공론화니까 마음껏 이야기 하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시나리오가 너무 많이 나올 거 같아요
위원장	- 제 생각에는 자유롭게 이야기는 하지만 조금 좁혀줄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저희가 이야기 할 수 있는 의제의 폭을 좁혀줘야 될 필요는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제가 앉아서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각자기 든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마지막 결론은 무엇을 알고 싶은 건가요?
위원장	- 지금 자료에서 보자면 용도변경을 해줄거냐? 안 해줄거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계획이득을 얼마만큼 받아들일 거냐고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떠하냐? 그런 얘기들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위원	- 저는 공론화를 한다는 것은 여기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용도변경 중에서도 또 주거지역에서 1종, 2종, 3종도 있고 준주거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선택, 이런 안들을 제시를 해서 결국은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봐요. - 그것이 논의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 되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 그러니까 어떤 거는 용도변경 가능 여부? 이런 거는 본인들이 고민하기 보다는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법률적으로도 아니면 하려면 엄청 복잡한 것도 있고, 그런 건 저희가 정보를 다 주어야 되는 거겠지요??

위원장	- 용도변경 가능하죠, 가능하니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 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주시 전체의 미래를 고민할 때 이 부지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지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려면 이 부지가 어떤 용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준주거에서부터 중심상업까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식의 다음단계 의제가 되는 거겠고요. - 또 하나 다른 방향은 개발방식에서 민간개발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공공개발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게 의제가 될 수도 있고 - 만약에 특정변경지구로 갔으면 좋겠다 준주거나 일반상업이나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혹시 붙어야 될 조건이 뭐니까? 개발이익이라던지 어떠한 시설이 기본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던지 이런 정도가 나오면 어떤 그룹들은 가만히 놔두자, 개발을 하되 준주거로 가자, 아니면 상업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려면 이러이러한 조건들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저쪽으로 가려면 저러저런 시설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이런 정도로 안들이 몇 개 그룹핑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고 그래서 용도변경 가능 여부가 아니라 용도변경은 어쨌든 가능 여부는 나중에 시에서 고민할 일이고 참여한 시민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안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 만약에 시민들 의견을 가만히 놔두다보면 엄청나게 중심상업지구로 가자던지 우리는 저 지역에 중심상업지구를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시설,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대신 개발이익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안을 내면 그 시민들 의견에 따라서 시가 저걸 구체화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될까 이런식으로 접근하는 정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 그래서 범위도 현재 현행 법에서 혹은 기존에 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 나온 얘기들에 제약을 둘 필요가 없이 일단은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을 땀던 분들도,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 부분을 이렇게 배치를 했던 거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거나 이런 상황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 그래서 저는 폭넓게 해서 그 상태에서 큰 틀에서 이 방향을 선택하면 또 그 방향에서 몇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저 방향을 선택하면 또 저 방향에서 몇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고 - 그걸 이제 중간중간에 마디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의제로 제시해 줄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위원	- 저 의제에 용도변경이 들어오는 순간 사실은 자광 프레임인거예요. 용도라는 말은 어떤 그리는 상에 따른 개발행위를 하기 위한 행정적 적법성을 갖추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 논의에서 하위개념인거죠 나는 저걸 상업용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 듣는게 뭐냐하면 현재는 도시기본계획상에 의해서 용도변경이 필요

	합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지를 그 다음에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 이게 사실은 인허가와 기타 부분은 상을 그리는 과정에 하위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용도변경을 할거냐 말거냐고 할 거면 그림이 안그려지는 거예요 -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테크니컬한 부분으로 먼저 앞서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 상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 위원	- 이걸 저번에 사전준비위원회에서 결정된 거 아닌가요?
위원장	- 미래상을 물어보는 것도 어떤 전제조건을 달고 물어보느냐 하는 디테일한게 있겠죠
○○○ 위원	- 저건 물어봐져야 되요. 묻는데 우선순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물을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용도변경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앞에 나오는 순간 아무 상을 그릴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이 되는 거지
○○○ 위원	- 그런데 저걸 앞에서 설명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들은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그거 왜 전주시에서 안해?” 라고 생각을 해요. - 아무런 상관없이 용도변경이라는 말도 잘 몰라요. ”왜 허가를 안내주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저 용지가 주거용지와 공업용지로 돼 있는데 라고 시작하면 용도변경에 대해서 앞서서 설명을 해줄 수 밖에 없는 필연성이 또 있어요. - 일반인들은 정말 몰라요. 일반인들은 개발을 한다는데 왜 시에서 허가를 안내주는 거야 정도예요. 저 부지가 어떤 용도로 되어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알겠지만. - 그래서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원래 안되는 거였구나를 알아야 시민들이 거기에서부터 그림을 그려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자광이 와서 질의하고 할 때 느꼈던 것이 뭐였냐면, 안되는 것을 와서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정말로 정당성을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공세하고 수세하고 바뀐 거예요 - 도대체 왜 이것을 되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지 참 저는 난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공업용지이고 기본계획상 주거용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거에 새로운 안을 제시했던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왜 해야되는지에 대한 정말 정당성이 있는 얘기들을 무수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해야 되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 여기서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안을 제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앞뒤가 다르게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 위원	- 자광에서 당황했다고 했잖아요. 주거용지로 되었다고 하니까, - 그건 조금 이해가 안갔어요. 그걸 모를 수가 없는데
위원장	-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시민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용도변경이라는 걸 나중에 하든지, 초기에 하든지 물어볼 수 밖에 없는 거죠. - 여기에 기반시설, 개발이익 환수, 지역상권 이게 저희들 의제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하나 딱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용도변경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을 저는 어떻게 물어보느냐, 또 언제 물어보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 저는 개인적으로는 2번을 물어보면 어떠냐라고 했던 것이 첫 번째 시민들이 워크숍에 오면 그냥 당신들이 생각하는 저 땅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이 뭐냐라고 맘대로 적어내 보라고 하고 - 그 다음에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법적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그래도 그 생각을 그대로 고수 할 것이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런 게 되지 않으면 당신의 미래상을 이뤄질 수가 없다라고하는 쪽으로 결국은 용도에 대한 생각을 시민공론화에서 내놓아야 되고 그것을 시민들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서 아니냐고 저는 결론적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 위원	- 저는 기본 인포메이션 없이 처음부터 바람직한 토지이용에 관한 상을 그려봐라라고 해서 그룹별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을 하면 실현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 정보를 주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 처음부터 의제가 용도변경에 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상이 안나온다는 거예요
○○○ 위원	-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위원장	- ○○○ 위원님의 말씀은 이런 거 같아요. 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주되 용도변경에 대한 얘기 없이 바람직한 미래상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그림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더 물어보고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 위원	- 정보는 미리 다 줘야 되지 않나요?
○○○ 위원	- 정보는 전체에 다 줘야 됩니다.
○○○ 위원	- 저는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바람직한 미래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논의를 할 때 사전에 자료집이 배포가 되잖아요? 저희가 참여자 분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두꺼운 자료를 주거든요. 이 분들이 다 학습을 하고 오시기 때문에 이미 자기들 생각에 아까 말한 여기는 개발이 안되고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상이 있는 겁니다. 이 정보를 입력한 상황에서 아마 바람직한 이용계획을 내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처음에 시작하는게 저는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 그 다음에 의제하고 운영하고 논의를 해야되는데 옛날 토론할 때 보면 아까 얘기한대로 바람직한 미래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시작하면 그 다음에 생각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생각들마다 경우의 수에 따라서 계속 가지를 뻗어나가면서 그림을 그려보면 저희들 이야기도 모아지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 위원	- 그러니까 경우의 수 대로 달라질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상업용지로 해야되겠다에 찬성하는 사람들이면 개발이득까지 가야되지만 그냥 공업용지로 놔둬야 되겠다는 그룹들이 있다면 거기까지 안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가지가 다 달라지는 거죠.
위원장	- 지금 어느 정도 틀이 보여진다고 봅니다. 예들 들어 기본 인포메이션을 다 주고 옛 대한방직 부지의 바람직한 미래상이 무엇이냐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30여 명의 방향이 한 4개 내지 5개 방향으로 구분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그룹들을 모아놓고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에게는 더 깊은 질문을 물어보고 필요없다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질문을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 위원	- 질문도 처음에 다 켜야 되지 않을까요? 질문도 단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정보와 같이 켜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저희가 사실은 워크숍이 시작되면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개입해서도 곤란하고 참관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룹핑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룹핑이 달라지면 질문이 달라질 수 있지 않나요? -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을 하자, 용도변경이 필요없다라고 나눠진다면 그러면 용도변경을 하자는 사람한테 던지는 질문과 용도변경이 필요없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처음부터 다 주는 것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 위원	- 질문이 저희가 의제로 논의해 주십사 하는 게 단계별로 6개인데 용도변경이 필요없다는 사람은 첫 번째 질문에 답하고 나머지 질문에는 답할 의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분들의 시나리오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3개까지만 시나리오에 포함시켰지만 4번째부터는 없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갈 수도 있고요. - 그래서 질문은 다 켜야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중간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 저는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질문서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되 각 그룹에 필요한 질문을 던져주자는 거죠.
○○○ 위원	- 할 수는 있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몰아가는 걸로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희가 질문을 다 주고 본인들이 가래를 타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 그러면 논의의 범위를 다 준다는 것은 실제로 저런 얘기들을 다 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 위원	- 어떤 걸 얘기하게 해줄 건지를 저희가 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 위원님이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 그러니까 용도지역에 대한 것들로부터 넣어서 가게 하느냐 아니면 본인들이 상을 그리고 그 상을 구체화 시켜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내면 “아 저게 될려면은 변경해야 되겠네”라고 뒤에 시가 그걸 판단을 할거냐는 다른 문제죠 - 거꾸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림을 다 그리고, 개발방향을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 그룹에서 “아 10년 뒤에 부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지에 이러이러한 시설들은 있었으면 좋겠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본인들이 하면 이게 현실화 되려면 어쨌든 중간에 용도변경이 있어야 되겠네 없어야 되겠네 이렇게 거꾸로 갈 수도 있긴 할 거 같습니다. - 그런데 이게 질문을 던져주기가 너무 어려울 거 같아요. 애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같지만 성인들이고 다 아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그림 그리듯이 그려보십시오 하는건 좀 어려울 거 같아요
○○○ 위원	- 제가 정리가 잘 안되는데요. 보여주시는 자료의 6개의 의제 초안 중에 4개의 의제는 대략 정리가 가요. 나머지 2개 의제를 제가 부동의 한다 는게 아니라 질문이 저렇게 가면 주제가 저렇게 가면 둘 중에 용도개발을 할래 변경을 할래 안할래 이렇게 되는거죠. - 그런데 각각의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가 용도변경을 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따라서 용도변경을 한다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걸 검토해주시옵시라고, 검토해여됩니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과 용도변경 가능 여부 및 이렇게 가면 프레임이 용도변경을 해야되나 말아야 되나 이 논쟁안에 빠진다는 거예요 - 그러니까 첫 번째 의제에서 용도유지 및 변경시 개발 방향 및 검토 사항 등으로 용도변경을 하위개념으로 내려야 된다는 거죠
○○○ 위원	- 지금 이것이 질문지는 아니잖아요? 이런 것에 집중해서 여기에 적합한 질문안을 만드는 거잖아요?
○○○ 위원	- 그렇죠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 지금 저도 그렇고 ○○○ 위원님도 정리가 잘 안되시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 위원님이 생각하는 흐름을 한번 러프하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 그러면 ○○○ 위원님도 얘기가 될 거 같은데... - 일단 맨 먼저 기본 인포메이션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옛 대한방직 부지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한 질문, 그 다음단계가 어떻게 될까요? ○○○ 위원님이 생각하는?
○○○ 위원	- 각각의 대략적인 시나리오가 나올 거 아닙니까, 공업용지로 그냥 쓰자, 상업용지로 하자 그러면 거기에 따른 토지용도 변경에 따른

	법적 절차 및 타당성 이렇게 질문을 주면 될거 같은데요
위원장	-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흐름은 - 첫 번째, 기본 인포메이션 제공 - 두 번째,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미래상 논의 - 세 번째, 용도변경(다운조닝, 업조닝)을 수반하는 필요한 미래상과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미래상 - 이렇게 그룹화 될 수 있겠습니까? ○○○ 위원님?
○○○ 위원	- 저는 이런 거예요, 대략 나는 여기다가 상업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부족한 아파트를 지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가능한 가라고 하는 것은 용도하고 접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용도변경의 절차 및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술적으로 용도변경을 상업용지로 할거냐 말거냐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주택용지로 되었는데 상업용지로 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토론이 되어돼요. 상업용지로 변경하는게 타당하냐
위원장	- 그 다음 단계가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그룹끼리 토의를 거치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	- 미래상 논의가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미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거구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용도변경이 업조닝이냐 다운조닝이냐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각각의 시나리오가 이것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나 합리성이 있는지를 검토해보라는 거죠. - 여기를 상업용지로 하자고 했는데 이게 형편성에 어긋난다 그러면 그 시나리오 자체가 이 논의를 통해서 동의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위원장	- 그러면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거기에 대한 타당성과 합리성을 논의케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요, 디테일하게 가자면?
○○○ 위원	- 아까 말한 업조닝과 다운조닝이 있겠죠, 그 다음에 현상유지,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른 상권영향이라든지 교통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케 하는 거죠.
위원장	- 네 그렇게 한번 던져보고 논의를 또 해보죠
○○○ 위원	- 저는 아까 세 번째를 각각의 미래상의 실현 가능성 검토
위원장	- 그럼 아까 세 번째에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필요한 미래상과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미래상을 세분화해서 각각의 미래상의 실현가능성 논의를 넣도록 하죠. - 저기에 대해서 ○○○ 위원님이나 ○○○ 위원님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위원	- 저는 기본적으로 미래상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 미래상이 해당 부지가 어떤 용도지구로 구성되어야 하는가? 꼭 하나일 필요는 없잖

	아요? 쪼개쳐서 구성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 분들의 시나리오거든요. 그 시나리오가 끝나는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합리성, 타당성, 실현가능성은 나중에 본인들이 당연히 논의를 해야되요. 왜냐하면 이 걸 가지고 시민들한테 저희 시나리오를 선택해주십시오라고 하려면 이 시나리오는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득을 해야되기 때문에 당연히 논의가 되어 됩니다.
위원장	- ○○○ 위원님, 기본 인포메이션을 제공하고 옛 대한방직 부지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논의케 한다는 것까지는 동의하십니까?
○○○ 위원	- 예
위원장	- 그 다음은요?
○○○ 위원	- 저는 그 논의가 미래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 그 미래상이 뭔가가 구체화가 되는 형태가 여기서는 용도변경일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 그걸 표현한다면 어떻습니까? 두 번째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미래상 논의를 세분화 한다면 토지이용 구상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겠죠. - 그러니까 저 미래상이 나오면 그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토지이용구상이 되어야 하는지를 제공하라 그런 뜻이죠
○○○ 위원	- 그게 이제 본인들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만드는 거죠
위원장	- 그러면 토지이용구상 도출(시나리오 작성) 이렇게 하죠.
○○○ 위원	- 그러면 이제 저 과정에서 토지이용구상을 도출하실 때 나름대로 근거를 좀 고민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는거죠.
위원장	- 네 그러면 토지이용구상을 도출하면서 실현가능성 등 시나리오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세분화 하겠습니다.
○○○ 위원	- 그리고나서 또 하나의 의제 논의 범위라면 그 시나리오를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의 필요한 조건들이 있겠죠.
위원장	- 그러면 2-2. 시나리오의 조건(사전준비위원회 4, 5, 6) 이렇게 하겠습니다. - 또 ○○○ 위원님이 저기에서 추가하거나 바꾼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위원	- 일단은 우리가 의제를 딱딱딱 떨어지는 전문적인 용어로 제시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 눈높이에 맞게 좀 편한 질문을 던지자라고 이해를 했고요. - 그래서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앞부분에 전주시 서부신시가지 도시계획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대한방직 미래상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었을 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라고 물어보는거고 그래서 아까 말한 토지이용구상을 내는 겁니다.
위원장	- 그럼 아까 시나리오 근거 제시를 “왜 이런 시나리오를 제시하게 되었는가?”로 해보죠
○○○ 위원	- 같은 생각인데요. 그니까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아까 실현가능성이라고 얘기 했지만 아까 말한대로 법과

	제도에 의해서 이것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내용인거죠.
위원장	- 그럼 개념 용어로만 써 놓지 말고 실현 가능성이라는 용어를 내가 제시한 시나리오에 어떻게 실현 가능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 위원	- 실현가능성 밑에 용도변경부터 해서 다 들어가야 되요. 실현가능성과 합리성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 위원	- 저는 이게 용도변경이 가능한가를 물어보는 이유는 이게 일반인들이 잘 모르기도 하잖아요? 이게 사유지인데 내 마음대로 바뀌어도 되는 건가? 아니면 공원을 만들자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 라는 부분들을 가능여부를 그 분들한테 알려주는거여가지고 - 그래서 첫 번째는 용도변경 문제를 뒤로 빼자는데 동의를 하면서 법과 제도 법은 도시계획법과 조례로 지구단위계획이나 관리계획을 해놓은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이분들이 먼저 해야되고 이 부분들을 너희들이 검토를 해봤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 법과 제도를 보니까 유지도 할 수 있고, 쉽게 아까 말한대로 다운조닝도 가능하고, 업조닝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한게 이게 우리 권리이라고 할 수 있는 데라고 확실히 배워야 그 다음부터 자기들이 신나게 자기 생각들을 펼칠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순서를 가져보면 어떻게 우선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 위원	- 동의를 되고요, 저는 현실로 돌아왔을 때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거에 대한 타당성, 합리성 논의라고 한 이유는 현실로 돌아왔을 때 인포메이션부터 시작해서 자광의 안을 머릿속에 담고 오는 한 단순히 행정적인 법적 용도변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업조닝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 토론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상업용지가 좋아, 이거 도시기본계획상 바뀌주면 되지 이런게 아니라 철저히 토론되어야 될 부분 때문에 저는 그 표현을 썼고 포괄적으로 보면 아까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현가능성 안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다운조닝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방금 ○○○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는 바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제 생각대로만 가고 싶은 사람은 그때는 논의 안하는 거죠 그 사람은?
○○○ 위원	- 그 시나리오에 따라 업조닝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그룹이 논의를 해야되는 거죠.
○○○ 위원	- 제가 생각해보면 다운조닝이라는 것은 결국은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던지 어떤 행정행위가 있어서 그때 그것을 수용한다던지 이런 것이지 지금 개인 사유지를 갔다가 이걸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공익사업법에서 공공성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지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 위원	- 다 구상을 해놓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야기 하다보면 아 불

	가능하다 그러면 이 시나리오를 포기를 할 거예요
위원장	- ○○○ 위원님, 혹시 추가하거나 이거 아니다라고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있으십니까?
○○○ 위원	- 저도 전반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다만 저희가 정보를 줄 때 용도변경 여부니 그런 중요한 의제이긴 한데 이런거는 예를 들면 상업용지로 갈 때는 이러이러한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주지 않나요? 정보로? 켜야되는 거 아닌가요? 그 자리에서 이걸 가지고 설명해주기 보다는?
○○○ 위원	- 켜야될 거 같고요. 지금 논의가 자신들 그룹에서 만든 시나리오의 대한 현실적 제약들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해라라고 하는 건 과한 거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이미 현실적 제약은 이러니 이 안에서만 논의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닐까요? - 현실적 제약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과 마음껏 얘기해 보십시오 대신 나중에 현실적 제약을 검토하십시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 현실적 제약에 대한 검토라는 부분이 시나리오를 짜는 사람들이 해야되는 부분인가, 처음에 풀어놔으면 현실적 제약에 대한 검토는 그 안들을 받은 나중에 공론화가 다 지나가서 나중에 받은 시에서 해야될 일이지, 아주 전문적이고 그런 제약들을 참여단보고 하라는 것은 저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러니까 내가 제시한 시나리오를 어떻게 실현 가능한가는 의제에서 물어보기에는 범위에서 벗어난다 그런 뜻이죠?
○○○ 위원	- 한 가지만 여쭙보면요. 그러면 공론화 참여자들에게 저희가 줄 정보 중에 자광의 안도 줄 필요가 없고 또 이러이러한 제약조건에 대한 것까지는,,,
○○○ 위원	- 저는 주는 건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만큼 아는 사람들이 와서 저걸 논의를 하면 사실 우리가 고민을 안해도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 저는 자광안을 줘도 되고 안줘도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줘도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의 사례로 알려줄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폐율이니 하는 내용가지고는 알기 힘들니 그냥 그림이라도 한번 보여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해봤어요
○○○ 위원	- 저는 현실적 제약에서 아까 법률적 제약, 용도변경 이런 것들은 안 없는데 여기에 기반시설 수용가능성이랄지, 그 다음에 지역상권의 영향 이런 것들은 좀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계속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행위로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 이게 지금 법률적인 제약이라는 것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용도변경은, 그런데 바꿀 수가 없는 것은 정확히 이 분들이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상황에서 이걸 해야지 그것을 모르고 이걸 한다면

	엉뚱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 지금 ○○○ 위원님은 이렇게 바뀌어졌을 때, 업조닝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러한 것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자세하게 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	- 저는 어느 정도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논의를 해보는 거예요 이를 테면 상업용지를 넣자 자광안하고 연결이 됐든 어쨌든, 그런데 이제 용도변경에 따른 형평성 문제나 특혜문제가 들어있으니깐 다양하게 이야기가 되는데 그 안에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등 대략적인 것들이 정리되어지는 정도지 저는 그것이 합법인가 불법인가를 가름하는 그런 것처럼 이게 타당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딱 결론 지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 또 한 가지 사례가 기반시설 역량 검토 및 수용 가능성은 엔지니어링 기술자들이 해야되는 거잖아요? 이 사항들을 고려해서 하라는 거지 어떤 시나리오에 대해서 기반시설 용량 검토를 어떻게 시나리오 워크숍에 참가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까, 마찬가지로 이유라고 보거든요. - 마찬가지로 토지용도에 따라서 변경이나 이럴 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만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을 업조닝을 하든 다운조닝을 하든 그 토론이 안들어간 상태 속에서 시나리오를 낸다는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 위원	- 저는 뒤에 나오는 기반시설 용량 검토, 수용 가능성, 상권 영향 등은 사전 자료입니다. - 만약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교통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상권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등은 기본적인 자료에 의한 것들이죠. - 본인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고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영향들을 받게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거든요. - 나중에 시나리오 간에 전체 토론을 할 때, 그 시나리오를 하면 어느 지역에 상권이 영향을 받지 않냐는 건 본인들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거라고 봅니다.
○○○ 위원	- 그러니까 기본 인포메이션 제공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기본 정보로 용어를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저는 자광 안을 설명,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 자광이 개발한다고 안 했으면 공론화를 할 필요도 없거든요.
위원장	- 정보 및 자료 제공에 법 제도, 예상되는 효과와 우려, 자광(안)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 위원	- 앞에 의제라고 제안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설명자료, 토론자료, 발표자료라고 생각했습니다.

	- 그리고 교통은 누가 발표를 하고, 기반용량은 누가 발표를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 참여단분들에게 발표 자료를 모두 주고, 그분들은 그 지식을 습득한 상황에서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죠.
위원장	- 1번 2번 사이에 참고 표시를 하고, 누가 발표할 것인지를 넣어주세요. - 그리고 가로 안에 자료집 구성과 발표라는 내용을 넣어주세요.
○○○ 위원	- 2-1이 사실은 3으로 2의 논의 결과로 도출되는 것이니, 3으로 내려와 시나리오 작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 위원	- 우리가 논의 범위를 정해주면 이 논의가 가능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준다고 전제를 해야 합니다. - 그래서 의제 논의가 나온 다음에 자료집과 운영 이야기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 일단 정보 및 자료는 모두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옛 대한방직 부지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논의토록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 위원	- 2-1이 3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 좀 더 구체화 되는 순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	- 토지이용 구상을 참여자들이 할 수 있을까요?
○○○ 위원	- 그냥 넓게 상업용지 계획의 미래상을 보니까 이곳은 상업용지가 좋겠다는 식으로 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일반 시민의 경우, 그분들은 아주 구체적이지 않아도 이쪽에 어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제시하여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일단 조율을 하면, 모든 정보 자료, 논의되었던 것들을 모두 제공하고, 다만 누가 발표를 할 것인가는 나중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정보와 자료를 주고,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자분들에게 옛 대한방직 부지에 바람직한 미래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토록 해서, 그래서 논의가 나오면 토지이용구상을 도출토록 하는 것으로 합니다. - 그래서 그 내용에 시나리오의 근거, 실현방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 위원	- 3번 토지이용구상이 되면 아마 그건 시나리오의 기본적인 요소만 나올 것 같습니다. - 3번 내용이 4번으로 넘어와서 시나리오의 실현가능성, 타당성 등이 논의되고, 5번에서는 제약조건들이 자연스럽게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 엄위원님, 그럼 4번 내용은 어떤 것으로 할까요?
○○○ 위원	- 4번을 시나리오의 실현가능성, 합리성, 타당성 등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5번은 이런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제약조건, 고려사항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 그런데 제약조건 등은 4번 안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 위원	-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예를 들면 이런 시설들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 근거는 이러하다는 것이 실현가능성, 합리성, 타당성 등이 되는 거죠. - 따라서 시나리오를 도출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논의해서, 고려해서 도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4번에 다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 나중에 잊어버릴 수 있으니 밑에 가로 열고 제약사항, 보안사항 등 모두 써 주세요. - 왜냐하면, 나중에 설명할 때, 앞에 큰 틀의 이야기를 하고 하위개념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것까지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표현할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 위원	- 그러면 시나리오의 실현가능성, 합리성, 타당성 제시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용도변경, 기반시설 등의 이야기가 가로 안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4, 5, 6의 시나리오 조건을 없애도록 하고, 그다음에 제약사항, 검토사항도 하이픈으로 하세요.
○○○ 위원	- 이제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는데, 이 시나리오에서 넓은 개념으로 용도지역까지 잡아서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 나중에 용도지역을 잡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행정에서 선택해야 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결정은 행정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 우리가 방향은 정해줄 수는 있겠죠. -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어떻게 단어를 사용해야 하나면, 3은 토지이용구상으로 가고, 4는 용도지역이라는 단어로 가야 합니다. - 그러니까 이곳에서 용도지역까지 정해주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자광 안으로 가면 상업지역으로 가되,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꾸는 결정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사항이고, 상업용지로 바뀌주면 상업용지 내에 중심상업용지냐, 일반상업용지냐, 근린상업용지냐는 시의 결정사항인데, 자광의 안은 일반상업지역으로 가야만 가능한 안입니다. - 그러니까 그 용도지역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 아니면, 상업용지로만 제시하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 토지이용구상에 가로 열고 용도지역하고 물음표 표시해주세요.

	- 이 부분에 대해 더 논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 위원	- 4-1은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 위원	-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구체적인 종별 구분까지 논의하라고 하면 조금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용도지역 관련해서는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나중에 공론화위원회 최종 보고서 작성 시, 시민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에 용도지역 등과 같은 문제들이 상당 부분 들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 그런데 시나리오 워크숍의 물리적인 시간을 볼 때, 이 내용 들을 한정하지 않고 모두 논의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 일단 전체 틀에서 우리가 정리하면, 그동안 모았던 정보, 자료, 법에 관한 것, 제도에 관한 것, 예상되는 문제에 관한 것들을 제공하는데, 자광 안까지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 제공하는 것은 맞습니다. - 문제는 우리가 그걸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자광이 발표를 하게 하는가? 아니면 자료만 주는가? 방법론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 ○○○ 위원님 의견은 자료를 제공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느냐에 대한 의견이 맞습니까?
○○○ 위원	- 네, 맞습니다. - 결론은 자광의 안을 얼마나 객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같습니다. - 그랬을 때 나오는 방법론의 문제와 자광이 발표했을 때, 그 발표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발표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자광 안을 정보 및 자료 제공에 담을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 위원	- 먼저 대한방직부지가 어떠한 법률적인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알고 시나리오 참여단 시작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또 하나는 자광에서 발표한 안들이 사실은 검증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 따라서 자광의 안에 대하여 충분히 공부하지 않은 분이 듣다 보면 자광의 의견에 수긍해 버릴 수 있습니다.
○○○ 위원	- 자광 안을 제공하는 것을 자료집에 넣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그래서 저는 전주시가 자광으로부터 받은 안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와 협의해서 적절한 양을 제공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두 번째는 자광 안을 들었으면, 다른 의견을 들어보자고 했었습니다. - 이 안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단체 등과 같은 의견들이 자료집에 자광 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가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제 생각에는 자광 안을 제공한다면, 전주시에 제출한 안이나 공론화위원회에서 발표한 안만을 자료로 제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자광의 안 중에 검증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선 팩트체크 정도 넣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 공론화라는 것이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내지는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으로 나중에 수용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광이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 불신 내지는 다른 플레이를 할 경우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어차피 사람들이 자광 안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자광의 브리핑을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 두 번째는 공론화 결과로 볼 때, 자광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일정 시간, 규정 안에서 자유롭게 하라고 했을 때와 틀을 주었을 때, 자광 쪽에서 왜곡되었다고 수용할 수 없다고 하거나, 외부에서 신뢰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이 결과에 대한 문제까지 고려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제가 방법론의 문제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 그리고 ○○○ 위원이 말씀하신 이 자광 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다른 객관화된 단체들의 발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 이 내용을 어떻게 객관화할 것인지로 봐야 합니다. - 그래서 무작정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충분히 시나리오 워크숍에 참여한 사람에게 사전에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이 사람들이 자광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충분한 준비, 그 다음에 자광에 대한 충분한 시간, 객관화 등 전체를 같이 생각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자광 안을 자광으로 하여금 발표를 시키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발표케 해야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자료집은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 자료집 작성할 때는 구체적인 페이지 수, 서술방식 등 기계적 중립까지 다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광 안이 나온다고 하면 반대의견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그리고 자광에서 발표를 한다고 하면 반대쪽도 똑같은 방식의 발표가 있어야 합니다.
○○○ 위원	- 그게 제가 말씀드린 방법론과 객관화의 문제입니다.
위원장	- 일단 자광 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십 분 정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 위원님, 바람직한 미래상 논의의 경우 그룹별로 물어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룹이 필요가 없습니까?

○○○ 위원	- 이게 운영과 관련해서 별도로 논의해야 할 부분이기도 한데요. - 기본적으로는 4개의 그룹을 만들었으니까, 그룹에게 2번과 3번을 만들어 보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한 그룹이 하나의 안을 내거나 2개의 안을 병립하거나 할 때는 전체회의를 해야 합니다. - 전체 회의를 통해 우리 그룹에서는 이러한 안이 나왔고, 이러한 근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서 이야기를 듣고 본인들끼리 또 한 번 모여서 변경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해보고나서 일반적으로는 영역별로 나누는데, 본 사안은 그럴 사안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원래 3번 그룹인데, 1번 그룹 시나리오가 맘에 든다고 하면 1번 시나리오 쪽으로 가는 겁니다.
위원장	- 2번의 바람직한 미래상 논의에서 4개 그룹별로 각 시나리오가 하나씩 나올 경우, 서로 같은 미래상을 갖는 그룹들이 나올 경우, 다시 그룹을 재구성해서 토지이용구상을 논의할 수 있습니까?
○○○ 위원	-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 시나리오를 통으로 보면, 미래상과 미래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용도지역 구성이 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 통으로 좀 만들어 보고, 통을 가지고 이 통과 나는 생각이 같지 않다고 하면 자기가 맞는 통으로 이동해 가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알겠습니다. 토지이용구상에 대한 도출이 시나리오상으로 나오고, 그 시나리오의 실현가능성, 합리성, 타당성을 제시토록 하게 한다는 것으로 현재까지 논의되었습니다. - 일단 이 정도 흐름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 위원	- 지금까지는 방향에 대한 논의잖아요. 그럼 이제 방식에 대한 논의는 어떻습니까? - 저도 방식은 정확히 모르니까요. 공공개발이 있을 수 있고, 민간개발 등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공공이 하게 하자고 하면 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 위원	- 예를 들어, 아까 나눠주신 kbs 방송에 출연하신 분을 다른 의견으로 받으면 이분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 공공개발입니다.
○○○ 위원	- 시에서 대한방직 부지를 수용해서 공익사업을 해야 할 타당성이 낮습니다.
○○○ 위원	- 사전준비위원회에 보면 첫 번째 개발 가능성, 두 번째 공공개발 가능성 검토가 있어서, 다른 건 모두 방향에 관한 부분인데 이건 방식에 관한 부분이라, 방식에 관한 부분을 논의 부분에 포함할 것인가를 여쭙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 저는 방식까지 들어가기에는 내용과 시간을 볼 때 논외라고 생각합

	니다. - ○○○ 위원님은 전주시가 매입해서 개발하라고 주장하십니다. -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개발방식까지 논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 그리고 앞서 ○○○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개발방식까지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	- 사전준비위원회 처음에 하실 때, 시에서 어떠한 것들을 논의해 달라는 주문서류가 있었습니까?
○○○ 위원	- 없었습니다. - 저희가 논의할 즈음 총선에서 민주당 경선 후보자 중 한 명이 대한 방직부지를 수용해서 공공개발 하자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 위원	- 공론화 주문자가 이것을 공식으로 논의해 달라고 주문을 했으면 논의범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위원장	- 그런 주문은 없었습니다.
○○○ 위원	- 그렇다면 공론화위원회가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 위원	- 저는 실현가능성 부분에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니까 개발방식을 논의하기는 어렵고, 과연 이게 실현가능 하나, 이를테면 수용방식 공공개발 안을 제시했다가 하위개념으로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 예를 들면 그분들이 부지를 모두 공원으로 해달라고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 그건 사유지 침해가 됩니다.
○○○ 위원	- 그거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이 부지를 매입하는 문제는 나중 문제이고, 예를 들면 시민들 95%가 모두 공원부지로 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원장	- ○○○ 위원님 예를 들면 매입비용을 따지기 전에 시나리오 워크숍에 참여한 분들이 공원으로 지정하라는 의견이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이야기하신 것 같고, ○○○ 위원님은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없어서 시나리오로 채택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위원	- 그 시나리오가 계속 채택된다면요? - 여기서 타당성, 합리성이라는 것이 그분들의 논의 속에서의 타당성, 합리성이지, 공론화위원회가 타당성, 합리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 위원	- 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 첫 번째 논의의 개방성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안이든 이야기를 해 보라고 하는 것이 시나리오 워크숍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공원을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공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 가능한지에 대하여 논의해보면 도시개발법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시가 반드시 매입해서 개발해야 한다는 것도 논의되는 것이 시나리오 개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제가 이러한 가능성까지 열어 놓자고 한 이유는 공론조사에서 이러한 안이 있었지만 실현가능성 때문에 폐기 되었다는 것까지 나중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 위원	-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살아남아서 공론조사까지 가서 마지막에 채택되면 어떻게 합니까?
○○○ 위원	-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 위원	- 제가 여쭙보는 것은 그렇게 되면 공익성이 있는 것이냐는 거죠.
○○○ 위원	- 저는 법률적 실현가능성으로 볼 때 채택될 수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 제 생각에는 모든 자료를 제공해서 아이디어를 받고,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룹에서 강하게 공원으로 개발하자고 하는 안이 나왔다면 거의 99% 합리성 등에서 뽑히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아 간다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 위원	- 제가 여쭙본 이유는 개발방식이 사전에 논의범위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공원으로 가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우리의 제안에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를 안 쓸 수 없잖아요.
위원장	- 공원으로 갔을 때, 방법이 뭐냐 하면 공공개발 밖에 없겠죠. -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으로 다른 문제죠. - 우리가 개발방식을 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위원	- 제가 여쭙본 것은 논의범위에 넣지 않더라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위원장	- 궁극적으로 법적 타당성, 비용 등의 문제를 이야기 함에도 불구하고 시나리오가 살아남는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 위원	- 제 말씀은 개발방식을 논의범위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질문들이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단에서 나왔을 때,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답변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원장	-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실현가능성에서 스스로 검토하게 되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 그러면 이 정도의 논의에, 각 항목에 필요한 자료를 시에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 그 자료집이 저희에게 제공되면 위원님들이 추가할 내용이나 페이지 수 등에 대하여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그러면 더 논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 첫 번째는 ○○○ 위원님께서 자광의 지배구조, 재정문제에 관해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자광 브리핑을 받았을 때, 겉으로는 용적률이 굉장히 낮는데 지하층은 용적률과 건폐율에서 빠짐으로 해서 수치가 보여주는 것이 미화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 그 다음에 기여율과 기부채납 등으로 표현되는 것을 보면, 흔히 기부채납 하면 현금과 토지인데 기여까지 포함해서 칠십 몇 %라고 하잖아요. - 일단 예를 들면 수치상에 자광의 주장을 어떻게 객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문제, 그다음에 지하층에 4만평씩 2층 구조로 해서 8만평이라고 하면 ○○○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상권영향에 관한 문제점들이 안 들어간 것 아니에요? - 그래서 재정문제를 비롯해서 자광에게 질문한 것을 자료집 구성과 무관하게 기본정보로서 객관적으로 답변을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를 정리해서 좀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두 번째로 일찍 발주가 돼서 용역사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 이 논의에 들어와서 공론화위원들의 논의 과정을 보면서 구체적인 시나리오 워크숍의 물리적인 시간과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함께 논의되고, 방법상 이렇게 되면, 나중에 실행단계에서 훨씬 보완적인 것이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두 번의 시나리오 워크숍으로 사전정보제공과 이 양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이 문제는 향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를 용역사가 선정되면 따로 미팅을 하던가 등등에 관한 보완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자가 나왔고, 논의범위를 논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논의는 운영방식에 관한 것이라고 봅니다. - 지금 계획으로는 이틀이고, 오전, 오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전이 소개고 이런 건데 그 부분이 1번에 해당이 될 것이고, 다음 논의 때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되면 두 번의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 다음에 3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된 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 지난번에 운영방식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운영방식에 대해선 용역사가 정해지면 그때 같이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 위원	- 저희끼리 먼저 논의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제가 여쭙본 이유는 8월 초에 용역사가 결정되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을 잠시 접고, 다음번 회의에는 우려되었던 ①PF에 관한 문제, ②기부채납과 계획이득에 관한 문제, ③파급효과에 관한 문제, ④교통영향시설에 대한 문제로 크게 4가지 검토할 사항을 7, 8차 회의에서 논의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 이 점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 PF, 기부채납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긴 한데요. - 어쨌든 자광 안이 아니고서는 다른 안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 실제 시나리오 워크숍이나 공론조사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정보인가? 아니면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왜냐하면, 논의 쟁점이 구체적인 자광 안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광이 아니라는 것도 사실은 경과를 이야기하면서 이러이러한 안이 제공되었고 그 안의 개괄을 이렇고 반론을 이렇게 있다는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 위원	-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 위원이 이야기했던 자광 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했을 때, 필수적으로 우리가 이걸 들어가야 한다는 제시 점을 갖기 위해서는 자광 안에 대한 정보를 객관화하여 판단을 좀 하고, 이 정도는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기본안을 제시를 해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 저는 시나리오 워크숍 참가자분들에게 제공 여부를 떠나서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출발입니다.
○○○ 위원	- 어차피 이 땅의 소유자가 자광이기 때문에 자광 안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자광 안을 검토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그래서 자광 안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그러면 이것만 결정해주시죠. - 지금 논의에 대하여 잠시 중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지금 이것을 어느 정도 확정 짓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저는 특히 오늘 ○○○ 위원님이 계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이 회의 결과를 드리고 회의를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가 짧은 시간이라도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정리된 의견을 주고 그걸 중심으로 토론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오늘 굉장히 많이 접근했지만, 사실 경험상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는 ○○○ 위원님이 이것을 놓고 의견을 종합해서 발표하여 좀 더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좀 전에 말씀하셨던 교통부분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상권영향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위원장님 말씀은 이 4가지 문제만 보고, 저것은 접자는 뜻인가요?
위원장	-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논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	- 둘 다 병행을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 병행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자 구성에 관하여 ○○○ 위원님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름까지 안을 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립니다. - 두 번째, 오늘 이야기했던 것들은 ○○○ 위원님에게 드려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다음 회의 때 간단하게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듣고 나머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 다음번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정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전문가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위원	- 공론위원이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게 남을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되는데요. - 그러면 이것은 회의록에는 남기지 않는 건가요? - 저는 웬만하면 위원들의 성향이나 판단이 보일 수 있는 것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이게 회의록에 남지 않는다면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가치판단이 개입이 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라면 누가 한들 그 사실이 달라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 예를 들면 이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우려될 사항이라면 누가 발표를 해도 ○○○ 위원님이 발표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다만, ○○○ 위원님에게 부담과 시간을 드리게 되는 걱정과 또 하나는 만약 ○○○ 위원님이 다른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분에 대한 사례는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위원	- 저는 사례 문제가 아니라 그 분야에 있는 분에게 자광의 안을 드리면 그분 역시 가치 판단을 할 것입니다.
○○○ 위원	- 가치 판단을 하긴 하는데요.

	- 공론화 위원회와 무관한 독립적인 외부전문가가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이게 연동이 되는 것은 나중에 위원들이 발표한 객관화된 자료를 자료집에 넣고 나서, 나중에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냐고 하면 나중에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 위원	- 자광에 질문하고 답변을 받으면 그 답변서 자료는 자광에서 제공한 겁니다. - 그 다음에 이 자료를 여기서 논의를 하되, 누가 발표하느냐는 좀 전에 ○○○ 위원이 이야기했던 위원회가 누군가가 이것을 객관화할 수 있는 것에 기준과 이 사람이 발표하고 이 사람이 자료구성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 위원	- 그 사람과 지금 이것을 굳이 구분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 위원	- 그러면 발표자가 회계전문가 따로 어떤 전문가 따로 다 들어가야 합니다.
○○○ 위원	- 저는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이것은 공론위원이 함으로 인해서 공격받을 가능성이 큼니다.
위원장	- 또 하나는 외부 전문가에게 무료로 부탁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 위원	- 사례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 위원	- 그걸 떠나서 ○○○위원님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질의서를 자광에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위원장	- 질의서를 쥘서 왔다 갔다하면 복잡할 것 같습니다. - 그냥 우리가 비공식적이라고 하더라도 듣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 위원	- 지난 번에 질의를 하라고 해서 제가 행정에 요구를 했어요. - 지분구조에 대한 것을 자광에 제출하라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 그런데 자광이 제출을 안 했어요. - 그러면 제출 안 한 것으로 끝나면 됩니다. - 이러한 정보를 요구했으나 제출을 거부한 것은 자광의 책임입니다.
○○○ 위원	○○님 자료 요구는 공문으로 하셨습니까?
전주시 관계자	- 네. 공문으로 했습니다. - 회신을 받았는데, 그 질의에 대해선 설명은 할 수 있어도 자료는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장	-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적이라고 보여지지만, 전주시의 여러 가지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가급적 공론화 위원님들이 객관적 입장에서 여러 문제들을 검토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다만, 비공식적으로 위원회 내부에서만 듣도록 하고, 앞서 우려되는 예상 문제에 대한 검토사항을 누구의 이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공론화 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으로서 이러한 사항이 우려된

	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 위원	- 그렇게 되면 주관적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 위원	- 공부는 그렇게 하고, 자료집은 외부에 맡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 위원	-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공식적으로 질문하고 답변 받는 것이 첫 번째고요. - 그것을 자료집에 수록하는 방식은 별도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두 번째는 발표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를테면 회계전문가나 도시전문가 등 한 사람이 하기 힘들다고 보면, 예를 들면 저희가 아는 회계사분에게 우리가 취합한 자료를 드리고 답변서를 받으면 된다고 봅니다.
○○○ 위원	- 사안에 대한 공론화 위원의 이해를 위해서는 위원분들 중에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료집 구성하는 사람에는 위원분들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일단 자료를 누가 제공할 것이냐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위원분들이 공부하자는 입장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 위원에게 부탁드립니다. - 그 다음에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 위원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 계획이득에 관한 부분은 ○○○ 위원님에게 부탁하겠습니다. - 상권영향에 대해서는 ○○○ 위원님에게 부탁드립니다. - 교통·환경 쪽은 제가 맡아서 해보겠습니다.
○○○ 위원	- 저는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자 구성안을 맡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 다음 회의에서는 PF에 관한 부분과 상권영향에 관한 부분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재무재표 분석과 PF의 개념과 현재 자광의 PF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와 개발부담금까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그럼 차기 회의 일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차기 회의는 7.27.(월) 오전 9:30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오늘 논의된 내용 중에 문구를 수정하고 싶습니다. - 1번에 예상되어지는 문제를 예상되는 효과와 우려로, 두 번째 자광(안)과 기타 제안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오늘은 결정된 사항이 없고, 논의의 사항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 그리고 ○○○ 위원님에게는 사전협상제도에 대하여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	- 저는 운영 초안을 맡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 위원님은 위원회의 언론 홍보부분을 맡아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오늘 제6차 시민공론화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